

규제에 가로막힌 혁신기술… 민관, 신산업 장벽 허문다

중기부, 17개 단체와 규제협약

소통창구 구축해 규제·애로 발굴
공론화 거쳐 관계부처 개선안 건의
AI역량 세계 6위·운영환경 35위
업제, 사후규제·컨트롤타워 구축
노 차관 “범정부 협력, 규제합리화”

신산업 스타트업 규제 발굴과 해소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뭉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오후 서울 마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스마트데이터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17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최근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의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기존의 제도와 규제는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앞줄 왼쪽 5번째)이 22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에서 17개 단체와 신산업 분야 창업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고 있다”면서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범정부 협력을 통해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협·단체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규제·애로

기업 조사 및 규제 발굴 공동 협력 ▲규제 해소 위한 공론화 및 관계부처 건의 ▲각 기관의 규제 대응 협업 및 신산업 분야 애로사항 발굴·논의 등을 함께 추진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앞서 스타트업 활성화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정부 과제로 ‘자금 확보 및 투자활성화’에 이어 ‘각종 규제 완화’를 꼽았다.

영국의 토터스 미디어(Tortoise Media)가 2024년 발표한 글로벌 AI 지수에 따

르면 한국의 AI 역량은 세계 6위 수준이지만 법·제도·규제 등을 포함한 ‘운영환경’은 35위로 AI 역량에 비해 한참 뒤처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AI 기술의 시장화, 글로벌 확장을 위해선 규제 개선과 더불어 윤리, 책임, 신뢰 등 AI 거버넌스 체계도 동시에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업계에선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면 기술, 자본, 인재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국가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한다. 스타트업 성장→투자 확대→일자리 창출→소비 진작→세수 증가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지난 21대 대선을 맞아 정책 과제로 ▲규제철폐, 혁신성장 우선, 네거티브 규제 등 ‘진흥’ 중심의 AI 기본법 개선 ▲AI 관련 규제 정비, 산업 육성, 데이터 정책, R&D 예산 집행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구축 ▲AI 기술 발전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 제약 현행 규제체계 개선 ▲시장 유연성·기술 발전 속도 고려한 사후 규제 중심 자율적 규제 체계 전환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결합된 플랫폼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가칭)플랫폼 산업 진흥법’ 제정 ▲플랫폼 기업, 소상공인(임점업체), 소비자, 정부 등 공동 참여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통신3사, ‘레이밴 메타’ AI안경 시장 선점전

5개 모델 판매 출고가 69만~74만원
요금제 결합 할인으로 구매부담 낮춰

통신3사가 인공지능(AI) 안경 ‘레이밴 메타’를 동시에 출시하고 요금제 할인 혜택을 앞세워 AI 웨어러블 시장 선점에 나선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KT·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이날 수도권 주요 매장에서 AI 안경 ‘레이밴 메타 웨이퍼어러(Gen 2)’를 선보인다. 국내에는 총 7개 모델이 출시됐으며, 이 가운데 통신 3사는 안경 프레임과 렌즈 색상을 조합한 5개 모델을 판매한다. 프레임은 매트 블랙(무광)과 샤이니 블랙(유광) 두 종류로 구성된다. 렌즈는 클리어, 그린을 비롯해 편광, 변색 등으로 나뉘며, 판매 모델은 통신사별로 차이가 있다.

출고가는 통신 3사 모두 기본형 69만원, 일부 렌즈 적용 모델은 74만원으로 동일하다. 고객들은 가입한 통신사의 요금 할인 혜택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레이밴 메타 웨이퍼어러 2 제품. /LG유플러스

KT는 멤버십 고객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공식 온라인몰 다이렉트샵에서 요금69 요금제 다바이스 B형을 선택하면 월 1만6000원대(24개월 할부)로 구매할 수 있다. 두 가지 프리미엄 혜택을 담은 ‘조이스더블 다바이스’ 요금제를 선택하면 월 7000원(36개월)에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베스트 109·프로·맥스 요금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할부금 할인을 선택하면 월 최대 1만 2000원에서 2만4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부 기간은 24개월부터 36개월이다.

LG유플러스는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니아다바이스 혜택을 운영한다. 일반 요금 구간에서는 최대 51% 할인 혜택을 적용해 월 9357원에 이용 가능하다. 고가 요금제인 69·65 요금제 가입 고객은 최대 80% 수준인 월 3857원에 선보인다. 특히 편광렌즈가 장착된 모델을 선택하면 최대 75%까지 할인해 준다.

이번에 출시한 레이밴 메타는 글로벌 IT 기업 메타와 아이웨어 기업 에실로룩소타카가 공동 개발했다.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와 3K 울트라 HD로 고해상도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저장 용량은 32GB다. 사진은 1000장 이상, 동영상은 30초 기준 100개 이상 저장할 수 있다. 오디오는 오픈이어 스피커와 5개의 내장 마이크가 탑재됐다. 충전 케이스를 활용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msjo@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런칭 행사

세단·SUV 장점 결합 넓은 실내

사전예약 1000대 내년 1만대 목표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차세대 순수 전기 플래그십 세단 ‘ES90’을 국내 시장에 출시하고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섰다. 특히 국내 전기차 판매 1만대 달성과 함께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격차를 좁히며 상위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2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ES90’ 런칭 행사를 진행했다. 이 모델은 볼보의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하면서도 가격은 7294만원부터 시작하는 등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다.

이윤모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는 “볼보 자동차는 내년 전기차 판매 1만대 달성과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90 라인업과 앞으로 나올 신차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해 프리미엄 시장 3위 안에 드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자신감은 올해 초 선보인 EX90의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지난 3월 국내 출시한 EX30



볼보자동차 순수 전기 플래그십 세단 ES90.

은 출시 당시 판매 목표인 500대를 훌쩍 넘어섰으며 현재 1000대가 넘게 계약됐다. ES90도 가격과 세부 사양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계약 1000명을 넘어 서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ES90은 차세대 전기차 전용 SPA2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플래그십 세단이다. 전기차 전용 설계를 바탕으로 세단의 우아함과 패스트백의 실용성, SUV 수준의 넓은 실내공간과 높은 지상고를 결합했다.

국내 판매 모델은 플러스와 울트라 트림으로 운영되며 가격은 싱글 모터 플러스 7294만원, 싱글 모터 울트라 8055만원, 트윈 모터 플러스 7960만원, 트윈 모터 울트라 8741만원, 트윈 모터 퍼포먼스 울트라 9541만원이다. ES90의 유럽 판매 가격은 약 1억 3000만원으로 국내보다 5000만원가량 비싸다. /양성운 기자 ysw@

BTS 부산 공연에 소상공인 매출 ‘들쭉’

중기부, 공연 전후 주요상권 분석

지난 6월 중순 부산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공연으로 주변 소상공인 매출이 3.6% 늘어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콘서트 당일 소상공인 매출은 10%나 넘게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부산 일대에서 열린 BTS 월드투어 ‘하리랑’ 공연 전후로 부산 주요 상권의 매출 변화를 분석해 22일 결과를 내놨다.

중기부는 부산광역시 내 한국산용데이터(KCD) 생활밀접점중가맹점을 대상으로 공연일 전후 2주간(5월 30~6월 27일·총 4주간)의 매출 변화를 지난해 같은 기간(5월 31~6월 28일)과 비교·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BTS 콘서트에 힘입어 부산 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특히 콘서트 당일 매출은 전년 대비 11.1%나 올랐다. 업종별로는 전체 업종 가운데 외지인과 관광객 방문이 잦은 편의점업(6.5%), 이마용업(6.2%)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매출 상승률을 기록했다. 음식점업도 3.6% 올랐다.

부산 내 전체 상권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벽화마을과 독특한 카페로 인기가 높은 영도 상권이 13.7%로 가장 수혜를 입었다. 이외에 국제시장(11%), 서면(8.7%), 해운대(5.0%), 부산역 인근(4.2%) 상권 모두 부산 전체 평균 매출 상승률을 웃돌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도했다. /김승호 기자

KT

통합 광고 플랫폼

‘바로광고 2.0’ 선포

KT는 통합 광고 플랫폼 바로광고 2.0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바로광고는 광고주가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다이렉트 세일즈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옥외·IPTV 광고 등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계약해 운영하지 않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매체별 광고 상품과 단가, 집행 현황도 실시간으로 공개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중간 유통 단계도 최소화했다. 또 데이터 기반 광고 서비스도 제공한다. 광고주는 원하는 지역과 타겟 고객에 적합한 매체를 선택해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캠페인 운영이 가능하다. /조민선 기자

LG U+, AI 데이터센터 전력 시스템 개발

LS일렉트릭과 직류 전력체계 구축

LG유플러스가 종합 전력 기업 LS일렉트릭과 직류 기반 전력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 AI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따라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LG유플러스는 LS일렉트릭과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공동 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구자균 LG일렉트릭 회장을 비롯한 양측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진행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최근 AI 추론 수요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그래픽처리 장치(GPU) 서버가 밀집된 AI 데이터센터는 순간 전력 사용량 변동폭이 가파른 이유로 직류(DC) 기반의 전력 공급 체계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직류 기반 전력 기술 중 특히 800V 직류 배전 구조는 전력 변환 단계를 줄여 차세대 표준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협력을 통해 회사는 LS일렉트릭의 전력 솔루션 기술력을 AI 데이터센터 운영 역량과 결합해 차세대 직류 기반 전력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